

상권 살릴 '차 없는 거리', 상인들 반발에 번번이 진통

**100년 전통 총장로상권
‘광주의 심장’이 식어간다**

〈2〉 상인 요구에 흔들린 정책들

상하차·배달 불편 이유 부정적
상인들 요구에 행사 개최일 변경
차량 통행금지구역 단속도 없어
지자체 생색내기성 사업만 추진
공영주차장·LED 거리 조성 등
“실효성 없는데 혈세 투입” 지적



3일 광주시 동구 총장로 3가 일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공실 상가들 사이로 차량이나란히 주차돼 있다.

광주시와 동구는 총장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작 상인들 반발에 밀려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반쪽 짜리로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결국 목표 달성을 거쳤다. 누구도 만족하지 못한 채 예산만 쓰는 비효율적 행정을 펼쳤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상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보다 표심에 밀려 상인들 요구를 수용하는 소극적 자세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3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동구는 수십년 전부터 총장로 일대의 차량을 통제하고 ‘차 없는’ 보행 중심 상권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성과는 미미하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광주 대표 도심을 걸으며 쇼

핑과 다양한 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해 상가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였지만, 상인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상인들은 물류 상·하차와 배달 판매 등이 불편해진다는 이유로 차량 통제 자체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광주시가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3년부터 총장로 1~5기를 ‘보행환경 개선 지구’로 지정한 정책도 흐지부지된 지 오래다. 총장로 일대는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시켰지만 온갖 차량들이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대낮에도 수십명이 윙바디 화물차가 버젓이 중심가를 통행하고, 수십대 배달 오토바이와 택시 등이 활보하고 있어 방문객들이 좁은 골목에서 차를 피해다녀야 하는 실정이다. ‘통행금지구

역’이라고 적힌 도로를 지나며 보행자에게 경적을 울릴 정도로 무질서가 극에 달한 상황임에도,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인근 금남로에서도 지난 2000년 전후부터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추진해 왔으나, 비슷한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해 3월부터 동구가 한 달에 한 번씩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열기 시작했으나 그마저도 상인들의 요구에 따라 개최일이 변동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상인들은 또 ‘공영 주차장 확충’ 등을 요구하는데, 이미 총장동 일대에는 공영·민영 주차장 등 총 5062면의 주차 공간이 확보돼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 인근 중앙초등학교 등 공유주차장과 동구청 등 평일 야간과 주말에 무료 개방되는 관공서 주차장까지 포함하면 실제 이용 가능한 주차 면수



3일 광주시 동구 총장로 우체국 건물에 광주동부경찰이 게첨한 ‘차량통행 금지구역 단속 안내’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는 더욱 늘어난다는 점에서 지자체가 충분한 고민 없이 주차장 조성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도 높다.

동구와 상인들이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근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상인 자신들 편의에만 골몰하는 사업을 견의하고 자자단체는 방문객 유입 효과도 미미한 생색내기성 사업만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더욱이 동구는 상인 요구에 따른 올해 신규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5억원을 투입해 총장로 1~3가 300m 구간에 공중 LED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포토존 6곳과 주요 진입부 조명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동구는 야간 시간대 유동 인구를 늘리고 체류 시간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애초 문을 여는 가게가 없는데 LED 조명을 달아놓는다고 방문객이 늘어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2018년에도 광주시가 총 37억여원을 투입해 K-Pop 거리를 조성하며 LED 전광판 등을 설치했지만, 시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외면받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타당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우식 광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구도심 활성화는 지역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과제다. 산발적인 요구에 따라 예산을 투입하거나, 상인들이 공동체의 합의가 담긴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방식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민들의 발길이 끊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인들과 행정이 머리를 맞대고, 진정한 상권 활성화 방안은 무엇일지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준영 기자 yoon@kwangju.co.kr

전남경찰, 지선 대비 선거사범 단속 돌입

수사전담팀 167명 편성

다.

중점 단속 대상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의 선거 개입,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5 대 선거범죄다.

불법행위를 실행한 이와 더불어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정황이 확인될 시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도 높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SNS와 맵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허위·조작 정보 유포에 대해서도 중대성이 따라 구속 수사 등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모상묘 전남경찰청장은 “경찰은 철저한 중립 자세를 유지하며, 지역선관위·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선거사범 단속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는 112나 인접 경찰관서에 적극 신고하는 등 공명선거 만들기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해졌다.

A씨는 이후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가 광주시 북구의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사안의 중대성 등을 들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수선집 강도 50대, 목격자에게도 흉기 휘둘러

늦은 밤 여성 혼자 있던 수선집을 노려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목격자에게까지 흉기를 휘둘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3일 A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밤 11시 50분께 광주시 서구 금

적용하여 강도 높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SNS와 맵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허위·조작 정보 유포에 대해서도 중대성이 따라 구속 수사 등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모상묘 전남경찰청장은 “경찰은 철저한 중립 자세를 유지하며, 지역선관위·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선거사범 단속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는 112나 인접 경찰관서에 적극 신고하는 등 공명선거 만들기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사안의 중대성 등을 들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들은 지방재정 신속 집행 실적을 채우려고 이 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양시는 시

공되지 않은 공사 금액까지 더해 업체에 지급하기 도 했다.

해당 건설업체는 2019년 폐업을 신고해 광양시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미시공 공사비를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광양시는 A씨는 5억 2000만원, B씨는 4400만 원, C씨는 4억 2700만원의 변상금을 내리는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문서인 공사 감독 조서, 준공 검사 조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행사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정부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실적 압박을 이기지 못해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 점, 적지 않은 금액의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生

누가 호박꽃도 꽃이냐고 묻길래 가장 실속 있는 꽃이라고 대답했다. 애호박은 개당 1천 원이 넘고, 황톳빛으로 물들인 채 노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연로한 호박은 개당 5천 원이 넘는다. 마누라 꽃이기도 한 노년의 호박꽃은 비록 찬란하진 않지만 실속파의 아름다운 꽃이다.

사랑의 프러포즈와 축하나 애도를 표할 때도 꽃이 대변인 역할을 한다. 꽃은 여인과 계절과 색깔과 향기를 아우르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뜻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식물이 아닐까?

—본문 「꽃」 중에서

태어날 生(生)이냐,

살아갈 生(生)이냐!!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서민들의 삶과 애환을
오롯이 보듬고 달린다.

인터넷 판매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서점 판매 광주(총장서점, 영풍문고)
나주(종로서점), 목포(연산서점)
순천(중앙서점), 전주(영풍문고, 혁신문고)
익산(동아서점)

312쪽 | 값 16,000원

이기원

1957년에 태어났다. 국문학을 전공했고 육군대학을 졸업했다.
18년 동안 직업군인으로 복무했고 전역 후 30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배우고 있다.
『바람 나그네』, 『회전목마 인생』, 『밥벌레의 행복』, 『이방인』, 『생(生)』 등을 펴냈다.